

배우 이선균 작정하고 코미디 한다면

영화 '킬링 로맨스' 조나단 나 역 맡아
B급 코미디 영화...이선균 첫 코믹 연기
"촬영 현장 워낙 편해 부담은 없었다"
빛어 넘긴 긴 머리에 콧수염까지 변신
"10~20대가 가장 좋아할 영화로 생각"



"축구를 치면 수비는 신경 쓰지 말고 슛만 쏘라는 느낌이었어요. 더 자유롭게 연기했어요."
아마도 영화 '킬링 로맨스'는 배우 이선균(48) 필모그래피에서 가장 의외의 선택, 가장 특이한 작품으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연기한 인물 '조나단 나' 줄여서 '존 나'는 이선균이 연기한 가장 독특한 캐릭터로 기억될 것 같다. 이선균은 '킬링 로맨스'에서 작정하고 웃긴다. 웃기는 정도가 아니라 미친 것 같다. 길게 빛어 넘긴 헤어스타일에 우스꽝스러운 콧수염을 붙이고 말 끝마다 "잇츠굿(It's good)"을 외치는 그를 보고 있으면 우리가 아는 그 이선균이 맞나 싶다. 영화 '기생충'의 '동익'이나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동훈으로 보여준 모습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다. "재밌을 것 같았어요. 촬영 현장이 워낙 편해서 웃어야 한다는 부담을 크게 느끼지도 않았죠."

'킬링 로맨스'는 톱스타 배우 황여래(이하니)와 정체불명의 사업가 조나단 나의 이야기로 그려진다. 연에게 생활에 염증을 느낀 황여래가 팔라섬이라는 곳으로 도망치듯 떠나고 그곳에서 조나단 나를 운명처럼 만나 결혼하게 된다. 하지만 7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여래는 자신을 이용해 사업을 확장하려는 조나단 나를 보면서 지금껏 그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건 모두 가스라이팅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조나단 나를 죽이기로 한다.
"출연했던 작품 대부분에서 제가 이야기를 끌고 가야 하는 역할을 했어요. '킬링 로맨스'는 황여래가 이끌어가는 영화이고 저는 제 캐릭터에만 집중해서 연기하면 됐죠. 게다가 이 작품은 될 해도 상관 없는 영화이니, 연기 하기 참 좋더라고요. 해방감 같

은 것도 느껴졌어요."
이선균이 '킬링 로맨스' 시나리오를 받은 건 3년 전이다. 이원석 감독의 데뷔작 '남자 사용설명서'(2013)를 워낙 재밌게 봤던 터라 이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는 얘기를 듣고 단번에 읽어냈다. 일단 깔깔 대며 보긴 했는데, 자신한테 왜 이 역할을 맡겼는지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저보다는 캐릭터가 강한 배우가 맡는 게 나을 것 같아 보였거든요." 일단 이 감독을 만나보기로 했다. 이선균에 따르면, 이 감독은 '이선균이라면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톱서비스를 계속해서 날렸다고 한다. 그리고 나서 이선균은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 갔다. 거기서 또 다른 주인공으로 물망에 올라 있는 배우 이하니를 만났다. "서로 정말 할 거냐고 확인을 했어요.(웃음) 하늬가 한다고 하길래 저도 한다고 했죠."
"왜 '킬링 로맨스'냐, 왜 코미디냐,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가 한 가지는 아니에요. 코미디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것도 딱히 아니었습니다. 캐릭터도 봐야 하고요, 이전에 했던 캐릭터와 겹치지는 않는지 봐야 하고요. 당연히 투자 여부도 보고요, 감독의 전작도 보죠. 복합적인 고민의 결과죠. 어쨌든 '킬링 로맨스'는 운명처럼 온 것 같아요."

일단 하기로 한 뒤에 이선균은 이 감독과 함께 조나단 나를 하나씩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특별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이 감독에게 주저 없이 연락해 소통할 정도로 공을 들었다. 조나단 나의 외모를 완성하는 데도 꽤 긴 시간이 걸렸다. 후보에 올라 있는 각종 헤어스타일을 모두 직접 핏팅 해보면서 가장 그럴싸한 것을 찾았고, 조나단 나 특유의 짧은 아이러인도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했다. 온갖 형태 콧수염을 붙여보며 가장 조나단 나스러운 걸 골랐다. "긴 머리는 촬영할 달 전부터 미리 붙이고 다녔어요. 가족들이 부끄러워 하더라고요.(웃음) 촬영 내내 아이러인을 그리고 있었는데, 촬영 끝나고 지우게 되니까 허전했어요."

'킬링 로맨스'에는 이전에 한국영화에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장면들이 있다. 그 중 대부분은 이선균 몫이다. 공개되고 나면 '이선균이 이런 연기까지 하냐'는 말이 나올런 것들이다. "못 하겠다 싶은 장면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것 빼고는 다 했습니다. 팔라섬 해변에서 삼각팬티만 입고 청국장 끓이면서 '행복'을 부르는 장면인데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있을 생각하니 너무 두려워서...(웃음)"

'킬링 로맨스'의 작정한 B급 코미디는 관객의 환호를 이끌어낼 수도 있지만 아쉬움을 받을 수도 있다. 그만큼 호불호가 심하게 갈릴 수 있는 작품이다. 다만 이선균은 이 영화가 최근 젊은 관객이 영상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과 잘 어울린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 영상을 주로 보는 10~20대가 '킬링 로맨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갖고 놀며 밈(meme·온라인 유행 콘텐츠)으로 소비했다면 한다는 얘기였다. "코로나 때문에 배급 시기가 많이 늦춰졌어요. 그런데 전 이 영화에는 그게 더 좋다고 봐요. 요즘 영상 콘텐츠를 소비하는 모습을 보면 '킬링 로맨스'가 통할 것 같아요. 10~20대 관객이 많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트와이스, 서울서 5번째 월드투어 포문

총 14개 지역 23회 공연...J·美 스타디움 투어 포함

K팝 간판 걸그룹 '트와이스(TWICE)'가 서울에서 새 월드투어의 성공적 스타트를 끊었다.
17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트와이스는 지난 15~16일 서울 송파구 케이스포돔(KSPO DOME)에서 다섯 번째 월드투어 '레디 투 비' 포문을 열었다. 특히 약 4년 만에 국내 '함성콘'으로 팬덤 '원스'의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특히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빌보드 200' 2위에 빛나는 미니 12집 '레디 투 비(READY TO BE)'의 타이틀곡 '셋 미 프리(SET ME FREE)'와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진입한 영어 싱글 '문라이트 선라이즈(MOONLIGHT SUNRISE)' '더 필즈(The Feels)' 등 세계적 인기를 모은 곡들을 국내 무대에서 처음 공개하는 등 총 24곡의 풍성한 세트리스트를 펼쳤다.



트와이스 콘서트 사상 처음으로 선보인 솔로 스페셜 스테이지도 크게 주목 받았다. 피아노 연주에 맞춰 감미로운 보컬을 들려준 다현, 돌보이는 외모로 세련된 퍼포먼스를 전한 쯔위, 과감한 춤사위와 매력적 분위기를 살린 사나, 파워풀하고 유려한 댄스를 모두 소화한 모모, 합한 팝 장르를 선택한 미나가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또 채영은 기타를 치며 직접 만든 노래 '내 기타'를 들려줬고 지효도 자작곡 '나이트메어'를 열창했다. 팝스타의 당당한 에티튜드와 재치 있는 리코더 연주의 합을 선보인 정연과 작년 여름 가요계를 휩쓴 트와이스 첫 솔로 주자 나연의 데뷔곡 '팝!(POP!)' 편곡 무대까지 9인 9색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JYP는 "여기에 약 4시간에 달하는 공연 내내 거대한 스크린, 계단형 세트, 이동차 등 입체적인 무대 연출이 마련돼 관객들과 가까이 소통했다"고 전했다.

멤버들은 "모든 순간 우리의 결을 지켜준 원스의 특별한 존재감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공연이었어요. 눈을 맞추며 노래하고 춤추는데 여러분이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크게 환호해 준 덕분에 이번 단독 콘서트를 위해 열심히 달려온 시간들이 더욱 값지게 느껴지고 뿌듯하다"고 입을 모았다.

"원스가 있기에 트와이스는 더욱 활하게 빛날 수 있어요. 특히 아낌없는 사랑과 응원 보내줘서 지금 이 무대, 그리고 전 세계 더 큰 월드투어 공연장 무대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트와이스로서 새로운 성과를 만들고 다시 돌아올게요"라고 약속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트와이스는 큰 에너지를 받은 서울 단독 콘서트의 기세를 몰아 오는 5월 2~3일(이하 현지시간) 호주 시드니를 시작으로 총 14개 지역에서 23회 공연한다.
특히 이번 투어를 통해 일본 오사카 안마 스타디움 나카이, 도쿄 아지노모토 스타디움에서 K팝 걸그룹 사상 첫 일본 스타디움 콘서트를 연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피아 스타디움, 뉴욕 메트라이프 스타디움까지 총 6회 스타디움 공연을 전개한다. 그중에서도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피아 스타디움 공연이 최근 티켓 솔드아웃을 달성했다. 트와이스는 해당 공연장 기준 'K팝 걸그룹 최초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김태희, 첫 스릴러...임지연과 '마당이 있는 집'



배우 김태희가 처음으로 스릴러물에 도전한다.

지니TV '마당이 있는 집'은 뒷마당에서 나는 수상한 냄새로 인해 다른 삶을 살던 '주란'(김태희)·'상은'(임지연)이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김태희는 '하이바이, 마마!' 이후 3년 만 복귀다. 주란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일상을 살다가, 뒷마당의 수상한 냄새를 맡고 혼란에 빠진다.
임지연은 넷플릭스 '더 글로리'에서 학폭 가해자로 열연한데 이어 가정 폭력 피해자로 분한다. 상은은 임대아파트에서 불붙은 일상을 견디며 산다. 주란과 만남을 계기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다. 김성오는 주란 남편 '재호', 최재림은 상은 남편 '윤범'이다. 재호는 능력있는 의사로 완벽주의자다. 뒷마당에서 수상한 냄새가 나자, 주란과 충돌한다. 윤범은 제약회사 직원이다. 상은에게 폭력과 협박을 서슴지 않는다.
'스물다섯 스물하나' 정지현 PD가 만든다. 지아니 작가가 쓴다.
6월 지니TV에서 공개하며, ENA에서도 전파를 탈 예정이다.

'슈퍼 마리오' 2주 연속 美 1위...올해 최고 흥행작으로

개봉 2주차 주말 매출액 8700만 달러
누적 매출 3억4780만 달러 올해 최고

애니메이션 영화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가 개봉 2주차 주말에도 미국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는 올해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 중 최고 흥행작이 됐다.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는 14~16일 매출액 8700만 달러(박스오피스 모조 기준)를 기록해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켰다. 누적 매출액은 3억4780만 달러(약 4550억원)다. 올해 미국 개봉 영화 중 이보다 높은 누적 매출액을 기록한 작품은 없다. 2위는 '엔트맨과 와스프:퀸탐미어'(2억1300만 달러)다.
이 작품은 일본 닌텐도가 1985년부터 내놓은 비디오 게임 '슈퍼 마리오' 시리즈를 영화화

했다. 미국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일루미네이션이 닌텐도 그리고 유니버설과 합작했으며, 애런 호바스·마이클 제레니가 연출했다. 영화는 뉴욕의 배관공 형제 마리오와 루이지가 배수관 고장으로 위기에 빠진 도시를 구하려다가 미스터리한 초록색 파이프 안으로 빨려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어벤저스' 시리즈의 스타로드로 잘 알려진 배우 크리스 프랭크이 마리오를, 찰리 데이이 마리오의 동생 루이지 목소리 연기를 맡았다. 안야 테일러조이는 피치 공주 목소리를 연기했다. 이와 함께 잭 블랙, 세스 로건 등 할리우드 스타들이 대거 참여했다.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의 전 세계 총 수익은 6억7800만 달러다. 국내에선 오는 26일 공개된다.
이밖에 미국 주말 박스오피스 순위는 2위 '더 포포스 엑소시스트'(915만 달러·첫 진입), 3위 '존 워 4'(790만 달러·누적 1억6000만 달러), 4위 '벤틀드'(780만 달러·첫 진입), 5위 '에어'(770만 달러·3330만 달러) 순이었다.

르세라핌, 확신에 찬 모험담...'언포기븐'

첫 정규 일곱 편의 트랙 샘플러 공개

그룹 '르세라핌(LE SSERAFIM)'이 첫 정규 앨범 '언포기븐(UNFORGIVEN)'에서 확신에 찬 모험담을 이야기한다.
르세라핌이 17일 하이브 레이블즈 유튜브 채널과 쏘스뮤직 소셜 미디어에 게재한 일곱 편의 트랙 샘플러가 '언포기븐'의 서사를 압축했다.
이번 영상은 정규 1집 수록곡들의 트랙과 각 노래의 테마를 표현한 그래픽, 글귀로 구성됐다.
한편, 르세라핌은 오는 5월1일 '언포기븐'을 발매한다. 타인의 평가에 개의치 않고 르세라핌만의 길을 개척하겠다는 각오를 담았다. 예약 판매 일주일 만에 앨범 선주문량 103만 장을 돌파했다.

